

# 자신의 길에 방향 세우는 것이 배움의 첫 조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⑧ 손오공 스승 수보리존자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의 원승이 왕, 그 뜨거운 구도의 여정 끝에 올바른 스승을 만나네요. 축하, 축하! 그리고 우리 원승이 왕을 제자로 맞은 수보리 조사님께도 축하, 축하!

우선 우리 삶에 모범이 될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이 없을 큰 복이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배우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보면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열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열망을 가진 눈을 늘 신선한 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배울 것이 없다는, 권태롭거나 오만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눈은 시커멓게 죽어 있으며, 언제나 짜증스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마련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한 쪽은 나날이 살아 나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쪽은 나날이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배우려는 열망을 가진다고 해도, 그 열망이 올바른 방향 없이 아무거나 무조건 배우려고 날뛰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갈팡질팡 어수선한 이상한 헤매니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제가 주창하는 헤매니즘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이비 헤매니즘에 속지 마시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헤매니즘은 참아줄 수 있지만, 계속 헤매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헤매니즘은 올바른 머뭇거림을 위한 전 단계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참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올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답을 받은 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제대로 잡은 사람은 반 이상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매우 너그러운 선생이고,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생의 입장에 서면 좀 엄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 질문이나 툭툭 던지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기 보다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고 타이르거나 유도하죠. 선생에게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 보고 물음을 던질 때, 선생은 제대로 된 답을 줄 수가 있고, 또 제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잘 소화해 내게 되죠. 이런 그대로 배움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그저 이걸 보면 이걸 배우고 싶고, 저걸 보면 저걸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길에 대해 큰 방향이 정해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는 자세가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리멸렬~. 부산한 호기심으로 이 문전 저 문전 기웃거리다 한 세상 다 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쓸 데 없이 아는 건 많은데, 아무 쪽에도 쓸 데 없는 그런 사람 되기 쉽죠. 음? 갑자기 제가 쟁기는 구석이 있네요. 제 안사람이 저보고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수!” 하던데... 저도 쓸 데 없이 아는 거 많아서 결국 먹고 싶은 것만 많은 사람인가요? 제 병은 너무도 자기 반성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인 것 같네요. 갑자기 좀 힘이 빠져 버리는 기분이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아는 거 많은 것은 인정 받은 셈이고, 또 자기 반성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편이니 다시 힘을 내 보죠. 하하

한마음으로 스승을 찾고, 또 배울 것을 올바르게 배우는 제자의 자세는 지금까지 우리 원승이 왕이 보여줬고, 또 앞으로 보여 줄 참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스승 만나는 얘기는 그만 두고 스승의 입장을 이야기 해 보죠.

“

스승을 찾고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자  
제자는 지식의 상속자로 자식과 같아  
수보리존자 눈에 손오공 구도심 보여  
행동거지 하나에 마음 담기 마련

”

스승으로서 훌륭한 제자 만나는 것은 제자가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이상의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자식을 두는 것이죠? 자식이란 자신의 자연적 생명을 잇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자신이 자연적 생명을 바탕으로 성취한 또 다른 생명의 상속자 아니겠어요? 그렇 저명 한세상 살아서 어떤 탁월한 성취를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을 사람을 찾으려는 열망도 별로 강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자연적 생명을 잇는 자식에게 자신이 살아서 얻은 것도 적당한 선에서 물려주고, “네 인생 너그러니까 잘 살아 봐라” 하면 되죠. 그런데 자식에게 전하려 해도 마음대로 전해지지 않는, 심성과 자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물려 줄 수 없는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 위해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그러한 자질과 심성을 갖추었다면 그 이상의 복이 없겠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만 봐도 제 아들녀석 “아



그림 · 최추현

빠 먹는 거 하고 자는 거는 도저히 못따라가겠어요!”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가소롭다는 듯이 말하곤, 그것을 계속해 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 같으니. 아! 나는 불행한 아빠~. 언젠나 나는 내 ‘삼패’(三快)를 계속할 제자를 찾을 수 있으려나!

참! 제가 스스로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고상한 표현으로 배설하는 거는 잘한다 하여 ‘삼패선생’이라 한다는 말씀 드렸던가요? 쾌시, 쾌편, 쾌변의 삼패 말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즘 나이 먹으면서 삼패가 좀 자신없어졌어요. 스스로 삼패선생이라고 했던 것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죠. 하지만, 특별한 건강법 챙기지 않고 이 세가지로 건강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는 그런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건강을 도모하는 여러 비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비법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비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 편법인 경우가 많죠. 건강의 왕도는 무엇이었어요.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것을 꼭오라면 뭐겠어요? 위에서 말한 세가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세가지를 잘한다는 것은 좀 오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 세가지 잘해서 별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점은 좀 평가해 주실만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먹고 자고 싸는 그런 일상적인 것 소홀히 하면서 무슨 보약먹고, 특별한 짓을 해서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마음에서 건강한 몸이 나올리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패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세요! 사실은 그 세 가지 보다도 좀더 일상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하나 더 있기는 하군요. 무얼까요? 숨쉬기입니다.

숨쉬기가 뭐 어려우냐고 묻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지만 숨 쉴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숨 쉴수록 것이야말로 몸 건강과 마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관찰이라는 거 아시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숨을 헤아리는 수식(數息)과 숨을 관찰하여 의식이 숨을 따라가는 수식(隨息)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도교 수행에서는 호흡법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라 할만큼 중요하죠. 그렇게 불교와 도교에서 숨쉬기를 중요시 한다는 것, 팬스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숨쉬기이죠. 물론 심장 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노력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며 쉴 수도 없는 것, 그 가운데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숨쉬기에 마음을 좀 써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유를 드리면서 슬그머니 부탁 하나 드리지요. 제가 예전에 스스로 ‘삼패선생’이라고 했던 것은 오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삼패’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서 스스로 ‘삼패선생’이라고 가끔 자칭 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러게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만난 인연으로 다 함께 삼패를 달성하고, 나아가 숨쉬기까지 잘하도록 노력해보기로 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더더욱 값진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노사연씨가 부른 노래가 떠오르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의 노랫말이 뭐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정말 훌륭한 노랫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바람이라는 필연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을 빛나고도 값진 것으로 만들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본 줄거리에도 정말 값진 만남이 나오는 대목이죠? 수보리존자와 원승이 왕의 만남입니다. 눈앞은 수보리 조사의 눈에 비친 원승이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록 인간이 아닌 원승이 왕의 모습이지만 그 뜨거운 구도심이 환히 보였을 겁니다. 원승이기에 잘 생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얼굴과 모습에는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살아온 자취가 담기기 마련이구요. 그래서 40 넘은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죠. 또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네 내 마음을 몰라”라든가 “내 마음 나도 몰라!”하는 말 쉽게 하지 마시라. 얼굴에, 모습에, 행동에, 말씨에 이미 내 마음 환하게 드러나 있다고 믿는 편이 속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에 가까울 것이구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의젓하고 준수하고 고상합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 가끔 좀 썰렁한 농담까지 섞어 가면서 애쓰는 열정적인 모습...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환히 비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열정적이고 맛있는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마치기로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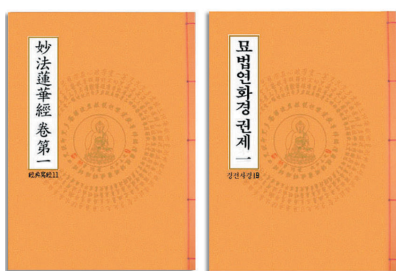
## ※ 법화경 · 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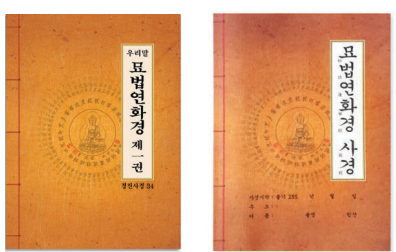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가 5,000원(1권)  
※간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 A (50개1박스)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